

양림동 ‘정율성 거리 전시관’ 새 단장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 발생
사업비·재해대책비 1억 투입
노후 전시·시설물 일부 철거
일대기 담긴 기록물 등 설치

광주 출신 천재 음악가 정율성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남구 양림동 정율성 거리의 전시관이 새 단장을 마쳤다. 8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사업비 1억 800만원을 투입해 양림동 정율성 거리의 노후 전시물 및 시설물의 일부를 철

거하고, 빈자리에 정율성 선생의 일대기를 담은 기록물과 사인물을 새롭게 설치했다. 이번 보수 공사는 지난해 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정율성 거리의 전시관 및 시설물에 발생한 피해에 따른 것으로, 사업비의 절반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분야 공공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로 지원했다. 남구는 기존에 설치한 홍보 영상 및 키오스크 등의 시설이 날씨의 영향을 받아 유지 보수에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율성 선생이 작곡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운

드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영상 시설물을 철거했다. 영상 시설물이 있던 자리에는 정율성 선생의 중국에서의 위상과 그에 대한 기념사업 소개, 선생의 가족과 친구들의 사진 등이 추가됐으며, 선생의 생전 모습을 형상화한 가로 2.2m 및 높이 1.7m가량의 청동 조형물이 배치됐다. 또 정율성 거리를 방문한 사람들을 위한 방명록 공간이 새롭게 조성됐으며, 야간에 방문한 관광객들이 정율성 거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 시설물마다 차분한 색채의 조명도 설치됐다.

남구 관계자는 “정율성 선생은 조국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 투쟁을 전개하면서도 창작 활동에 전념해 중국 최고의 음악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분의 삶을 재조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율성 거리를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출신 음악가이자 항일 독립운동가 정율성 선생은 광주 숭실학교를 마치고 1933년 항일 운동에 가담한 형들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후 연안의 루쉰 예술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한 그는 1939년 중국 공산당에 입당해 ‘팔로군 대합창’을 작곡했다. 팔로군 대합창은

1949년 중국 건국과 함께 인민해방 군가로 불리다 정식 군가로 비준받은 곡이다. 정 선생은 지금까지 중국 3대 혁명음악가로 추앙받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 문화예술계에서는 작품을 통해 정율성 선생에 대한 연구와 평가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율성 선생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경계인’과 다큐멘터리 영화 ‘경계, 마나면 나라’ 2편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극장 개봉 대신 OTT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많은 영화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김민빈 기자



1회용품 모니터링단 운영

광주 남구는 환경 보호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일회용품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다. 일회용품 모니터링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의 용품 사용 실태 점검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등을 위해 운영된다. 모니터링 대상은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비롯해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즉석 판매 제조 및 가공업체 등 3,737곳이다. 남구는 관내 17개 동을 3개 권역으로 분류, 9월부터 11월까지 모니터링단 3개조를 투입해 매월 5차례씩 총 15회에 걸쳐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관내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감소할 수 있도록 업체를 방문해 사용 규제 안내 및 제도 활동에 주력하고, 재활용 가능 물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청소년도서관 운영위원 모집

광주 남구는 청소년도서관 운영위원을 오는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운영위원은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을 비롯해 자료 수집과 열람, 도서대출 등 주민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각종 문화사업과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업무 협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청소년도서관 운영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10~15명 이내이며, 활동 기간은 다음달부터 2023년 9월까지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운영위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청소년도서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민빈 기자

자전거 보험 제도 본격화 내년 8월 29일까지 유효

광주 남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친환경 에코시티 조성을 위해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남구는 8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남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구민 자전거 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적용되며, 유효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8월 29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도로를 보행하던 중 자전거와 부딪혀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모두 해당된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의 주민을 제외하고 1,000만원의 보상금이 지원되며,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3~100% 장애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제공한다. 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을 시에도 진단 주수에 따라 10~50만원의 진단 위로금과 6일 이상 입원할 때에도 10만원의 입원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만 14세 이상 주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2,000만원 한도로 보상되며, 구속 및 공소가 제기된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김민빈 기자



민원현장 확인의 날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최근 ‘민원현장 확인의 날’을 맞아 백운광장 주변의 하수암거를 방문,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 2019년부터 지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남구 제공

찾아가는 국민지원금 서포터즈 운영

광주 남구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홀로 사는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구 등을 방문해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국민지원금 신청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8일 남구에 따르면 ‘찾아가는 국민지원금 신청 서포터즈’는 오는 17일까지 관내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운영되며, 장구 이용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하면서 홀로 사는 어르신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1인 장애인 가구다.

남구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 34명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2명씩 배치하기로 했으며,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가정 방문을 신청하면 방문 당일 현장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지원금을 곧바로 지급할 방침이다. 관내에 홀로 사는 어르신 및 장애인 가구는 약 1,304세대로 파악된다. 찾아가는 서포터즈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남구청 행복복지 7979센터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민빈 기자

어르신 건강 놀이터 노인복지관 증축

노후시설·협소공간 개선

어르신들의 건강 놀이터인 광주 남구 노인복지관이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를 통해 새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8일 남구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의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인한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사업비 10억 6,000만원을 투입해 남구 노인복지관 증축 공사를 실시한다. 지난 1999년 지어진 남구 노인복지관은 하루 평균 관내 어르신 500~600명가량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노인 복지시설이다. 건축 20년이 경과해 건물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도 필요한 상황인 데다 이용자 수에 비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협소한 실정이다.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총 28개인 반면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은 5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남구 노인복지관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사랑의 식당의 경우도 하루 평균 어르신 350명가량이 식사를 하는데 1회 수용 인원이 60명밖에 되지 않아 5교대를 통해 끼니를 해결하는 등 큰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현 남구 노인복지관 건물을 수평으로 증축해 사랑의 식당 공간을 넓히고, 73㎡(22평) 크기의 다목적실을 만들어 바독실과 독서실, 자료 열람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민빈 기자

이밖에 남구 노인복지관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사랑의 식당의 경우도 하루 평균 어르신 350명가량이 식사를 하는데 1회 수용 인원이 60명밖에 되지 않아 5교대를 통해 끼니를 해결하는 등 큰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현 남구 노인복지관 건물을 수평으로 증축해 사랑의 식당 공간을 넓히고, 73㎡(22평) 크기의 다목적실을 만들어 바독실과 독서실, 자료 열람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민빈 기자

이밖에 남구 노인복지관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사랑의 식당의 경우도 하루 평균 어르신 350명가량이 식사를 하는데 1회 수용 인원이 60명밖에 되지 않아 5교대를 통해 끼니를 해결하는 등 큰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현 남구 노인복지관 건물을 수평으로 증축해 사랑의 식당 공간을 넓히고, 73㎡(22평) 크기의 다목적실을 만들어 바독실과 독서실, 자료 열람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민빈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목포(갑)	010-3272-2765
목포(을)	010-3635-6777
여수지사	010-8648-1236
순천지사	010-2547-7890
나주(갑)	010-7706-2410
나주(을)	010-3713-7458
담양지사	010-8004-9885
곡성지사	010-6764-6100
구례지사	010-6636-3039
고흥지사	010-9151-2828
화순지사	010-3100-0386

장흥지사	010-3613-6114
강진지사	010-6646-1241
해남지사	010-8181-2627
영암지사	010-4624-8409
무안지사	010-3621-8989
함평지사	010-3600-0500
영광지사	010-8666-2882
장성지사	010-3666-1300
완도지사	010-5619-7020
진도지사	010-3624-4777
신안지사	010-4627-1472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